

문 대통령-추미애 장관 면담...동반사퇴 의견 나왔다

秋, 윤석열 총장 관련 검찰 경과 등 보고... 4일 징계위 결론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께 청와대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반발,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관

측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 관측도 나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와 10여분간 독대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이번 면담에서 '동반 사퇴론'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후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징계위가 열리기 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면서도 "대통령보고 때와 총리 면담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뒤흔킨 조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4일로 연기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이날 인용된 집

행징지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검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난달 25일 집행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곧바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들의 질문에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가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4일에 열기로 했다. 원래 기일인 오는 2일에서 이를 연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다시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검사 자격 완화·野 비토권 약화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낮추고,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지난 달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의 속기록을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고위 공수처 장관은 "요구되는 경력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실제 수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내고, 김용민 의원은 "50세 이하 중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을 법무부와 법원, 변협에 확인해보니 200명이 넘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혜련 소위원장이 "개인적으로 7년이 적당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자 김용민 의원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호응했다. 또 백 소위원장이 "법적으로 애매한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5년 이상 조항은 빼자"고 제안하자 검사 출신 송기현 의원이 "그게 나올 것 같다"고 동의했고, 결국 해당 규정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7명으로 구성된 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는 현재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추천위원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내부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4일까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8일쯤 본회의에 상정,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전두환 유죄, 진실 빚장 열려”

정세균 총리 “진상규명 더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전날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제야 숨겨지고 억눌린 진실의 빚장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 온 고(故) 조비오 신부님 유족과 비틀린 역사로 고통받고 계신 광주시민께 위로를 드립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총리는 "40년이 흘렀지만 5·18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다"며 "우리가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완전한 치유와 용서로 광주에 상흔을 역사에 이듬으로 남겨두는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광주에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완전한 진상규명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영선 “서울시장 자질은 푸근함”

라디오 출연...출마여부 질문에 “인사 문제 대통령이 결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시장의 자질에 대해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푸근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개각 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며 "저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위기의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 그리고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을 접목해드리는 일이 지금 중기부가 하는 일이고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라며 "저도 이제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 범위를 보면 적당할 것 같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만큼의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기는 조금 힘들고 액수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등 51건 의결

방탄소년단(BTS)이 입대를 늦출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도사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지역 법안 등도 국회에 통과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법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향토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령령령 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

온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유족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정당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서상석(영암무안신안)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고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광주조합 대의원 선출 규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대의원 임기
2021. 1. 1. ~ 2024. 12. 31.(4년간)
- 2 대의원 선출인원 : 25명
- 3 후보자 등록
광산구, 서구, 남구, 함평군, 관내에서 담배를 판매 중인 회원
- 4 서류제출기간
2020. 12. 1. ~ 2020. 12. 18 (금) 오후 4시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전 회원
- 6 피선거권
정관 제22조 제1항 각 호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7 문의처 : (062)955-2615

2020년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광주조합 선거관리위원장 홍훈기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1. 피상속인: 망·이성희(050520-XXXXXXX)
2. 피상속인: 친남·이성희(1111-1111)
3. 피상속인: 망·이성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며 2020.12.17(토)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21일 인준된 바 있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의 유증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하기 위하여 위 기한이 지난 후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4. 상속인: 1. 이원우(030408-XXXXXXX) 2. 이원우(011226-XXXXXXX) 상속인 1, 2 주사: 양주지 우로동로 18길 25, 102동 601호 (의외일출, 양주지)
3. 상속인 1, 2 주사: 양주지 우로동로 18길 25, 102동 601호 (양주지, 양주지)
4. 상속인 3, 4 주사: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5. 상속인 5, 6 주사: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6.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7.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8.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9.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10.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11.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12.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13.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14.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15.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16.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17.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18. 양주지 우로동로 282, 5동 301호 (양주지, 양주지)

상속한정승인공고

1. 피상속인: 망·홍지민(40920-XXXXXXX)
2. 피상속인: 친남·홍지민(1111-1111)
3. 피상속인: 망·홍지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며 2020.12.17(토)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25일 인준된 바 있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의 유증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하기 위하여 위 기한이 지난 후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4. 상속인: 1. 홍지민(671126-XXXXXXX) 양주지 우로동로 47, 101동 1314호 (양주지, 양주지)
2. 홍지민(011227-XXXXXXX)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4 지하층 102호(양주지)
3. 홍지민(730526-XXXXXXX) 서울 서대문구 거북길22길 16, 2층 1호 (양주지, 양주지)
*신고기간: 2020. 12. 2 ~ 2021. 2. 10.
*재판소결소: 상속인 1. 홍지민의 주사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하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 동 흥 22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8171 • 영 흥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흥 433-1503 • 우 흥 433-1503

동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총 안 222-9054 • 총 창 222-8171

남구 • 남 부 675-5530 • 백 운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하 675-6605 • 친 날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3 • 서광주 369-1625
• 언 천 376-7153 • 치 흥 376-6511 • 용 흥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천 973-2900
• 하 남 955-0451 • 평 산 944-0444